

설비투자, 대기업이 위축 주도...

현대경제연구원, 2011년 대기업 8.1% 증가에 중소기업 52.1% 급증

2012년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 부진이 계속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.

현대경제연구원이 3월12일 발표한 <최근 설비투자 부진의 배경과 전망> 보고서에 따르면, 2012년 대기업의 설비투자가 2011년보다 2%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.

2011년에도 대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(8.1%)이 중견(9.6%) 및 중소기업(52.1%)에 미치지 못했고, 2011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설비투자 둔화는 대기업 중 상위 5대기업의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.

또 국제통화기금(IMF)이 2012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국내에서도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하는 등 대내외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설비투자 조정압력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설비투자 조정압력의 하락은 생산부진 등으로 설비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.

보고서는 설비투자 증가율이 1% 하락할 때 경제성장률은 0.1% 떨어진다고 정부의 공공투자 확대를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제도 개선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3/12>